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20. No. 3, 2009

MMPI에 나타난 한의대 졸업반 학생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 (1)

이동화, 김보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Study about Personality Traits of Oriental Medical Students in Graduating Class on MMPI (1)

Dong-Wha Lee, Bo-Kyung Kim

Dep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sonality traits of oriental medical students in graduating class by using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Methods :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4 (male 108, female 56) oriental medical students in Busan. MMPI scores were analyzed about validity scales, clinical scales and personality disorder scales in aspects of whole student, attendant year, gender and ages.

Results & Conclusions :

First, The average scores of MMPI scales showed that oriental medical students in graduating class lay within the range of normal.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attendant years, and averages of each year made little difference to whole student. The students belonged to 'defensive group' that were doing adaptive defense relatively Second, in comparison with gender, female students got more social adaptability and less stress than male students. In comparison with ages, group of 28~42 years old tended to make up themselves with defensive attitude.

투고일 : 8/6 수정일 : 8/28 채택일 : 9/4
교신저자 : 김보경,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2동 산25-1 동의대학교부속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Tel : 051-850-8809, Fax : 051-867-5162, E-mail : npjolie@deu.ac.kr

Key Words :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Personality traits, Oriental medical student, Graduating class

Ⅰ. 서 론

대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전망, 사회에 대한 기대감, 개인적 적응 등의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이처럼 개체 내부와 외부, 양쪽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여 힘들게 진학한 대학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의과 대학생 집단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사항들 이외에도, 고교시절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한다. 고교시절 최상위 우등생들이 열등감을 느끼거나 자기상에 손상을 입기도 한다[1]. 의학교육은 교육의 측면 이외에, 이를 통하여 배출되는 인력의 자질이 국민 전체의 건강수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2].

국내에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 3국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3]를 비롯해, 전공별 학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MMPI를 이용한 연구[4-6]가 있었으며, 비정상 MMPI프로파일을 나타낸 대학 신입생의 학업 적응에 대한 연구[7]도 있었다. 한의계에서는 허[8]가 한의대 재학생의 MMPI와 사상체질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의대 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알아보았고, 김[9]의 알콜리즘과 사상체질과의 관계에서의 인성검사에 대한 연구 등, MMPI와 사상체질과의 관계성을 찾고자하는 연구가 있었다.

한의과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한 학생들과, 다른 대학을 다녔었거나 졸업하고 입학하거나, 직장 및 군복무 등의 사회생활을 경험한 다양한 학업적·직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혼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0].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한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면적 인성검사를 이용하여 한의과대학생의 공통적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성별과 연도에 따른 졸업예정자들의 성격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2005부터 2008년까지 부산시 D대학교 한의학과 4학년 재학생 중 자발적으로 인성검사에 응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결과자료 분석에서 충실성이 의심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TR과 CA가 6이상인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64명(남

자 108, 여자 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한의학 전공 남녀학생들에게 다면적 인성검사(MMPI ; 김재환 외 가이던스센터)를 검사요강에 따라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MMPI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문지를 각자 집에서 작성한 후, 결과분석프로그램인 MMPI전문가 2004XP을 통하여 결과를 자동 출력하였다.

MMPI는 질문지형 성격검사로 상당히 투사법적 함축성을 띤 56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사자가 "그렇다", "아니다"의 두 답변 중 하나를 택하여 반응하게 되어있다. 10개의 임상척도는 피검사자의 비정상 행동 유형을 측정하는 것으로 건강염려증(Hs), 우울증(D), 히스테리(Hy), 반사회성(Pd), 남성특성-여성특성(Mf), 편집증(Pa),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경조증(Ma), 내향성(Si)로 되어있다. 피검사자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타당도 척도로는 ?(알수없다)척도, L척도, F척도, K척도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검사-재검사 (Test-Retest, TR) 지수와 부주의(Carelessness, Ca) 척도를 통해 피검사자의 태도를 탐지할 수 있다. 성격장애척도는 연기성 성격장애(HST), 자기애적 성격장애(NAR), 경계선적 성격장애(BDL), 반사회적 성격장애(ANT), 강박성 성격장애(CPS), 수동-공격성 성격장애(PAG), 편집성 성격장애(PAR), 의존성 성격장애(DEP), 정신분열형 성격장애(STY), 회피성 성격장애(AV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SZD)에 대한 11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3. 통계분석

MMPI에 관해서는 164명의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10가지 임상척도와 11가지 성격장애척도의 항목에 대하여 연령 및 남녀 성별간의 척도 점수 차이가 있는지를 t 검정하여 비교분석하였고, 연도에 따라 MMPI 각 척도가 다른지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ver 12.0을 이용하였고 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 인 경우로 하였다.

Ⅲ.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64명의 학생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08명 (65.9%), 여학생이 56명 (34.1%)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3세부터 42세까지로 23-27세가 115명(평균24.8세, 70.1%), 28-42세가 49명(평균32.1세, 29.9%)이었으며, 전체평균 27.1세, 남자평균 27.5세, 여자평균 26.1세이었다.

Table Ⅰ.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Variables		Male	Female	Total (%)
Year	2005	32	14	46
	2006	20	10	30
	2007	31	15	46
	2008	25	17	42
Age	23-27	72	43	115 (70.1%)
	28-42	36	13	49 (29.9%)
	average age	27.5±4.5	26.1±2.9	27.1±4.1
	Total	108 (65.9%)	56 (34.1%)	164 (100%)

2. 대상자의 MMPI 성격특성

대상자들의 MMPI 결과는 표2에서와 같이 정상범주 내에 속해 있었으며, 타당도척도에서 K척도가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임상척도에서 가장 높았던 것은 Hs로 평

균 52.76이였으며, 그 다음으로 Pd가 52.23, Hy가 51.19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Ma로 평균 41.55이였고 그 다음으로 Pa가 46.38로 나타났다.

성격장애 척도에서는 NAR가 평균점수 50.0으로 가장 높았으며, CPS가 40.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II. MMPI Scale of Whole Students

	M	SD	Max.	Min.
L	50.1	10.5	31	88
F	46.5	8.8	32	81
K	60.3	11.2	31	83
Hs	52.8	8.6	36	77
D	51.1	10.6	25	82
Hy	51.2	9.9	31	74
Pd	52.2	9.6	26	79
Mf	49.5	9.9	25	77
Pa	46.4	9.9	24	89
Pt	47.0	9.7	28	77
Sc	46.5	8.6	29	74
Ma	41.6	9.8	21	70
Si	48.5	11.2	26	78
ES	58.4	10.0	30	78
HST	49.7	10.1	28	75
NAR	50.0	10.1	28	74
BDL	44.9	9.6	29	74
ANT	47.6	9.4	27	73
CPS	40.9	9.2	26	67
PAG	43.4	10.8	25	73
PAR	43.4	8.5	31	77
DEP	44.8	9.7	29	74
STY	44.0	9.2	30	79
AVD	47.3	10.4	27	70
SZD	49.9	9.6	31	79

L : Lie, F : Frequency, K : Correction, Hs : Hypochondriasis, D : Depression, Hy : Hysteria, Pd : Psychopathic Deviate, Mf : Masculinity-Femininity, Pa : Paranoia, Pt : Psychasthenia, Sc : Schizophrenia, Ma : Hypomania, Si : Social introversion
HST : Histrionic, NAR : Narcissistic, BDL : Borderline, ANT : Antisocial, CPS : Compulsive, PAG : Passive- Aggressive, PAR : Paranoid, DEP : Dependent, STY : Schizo- typal, AVD : Avoidant, SZD : Schiz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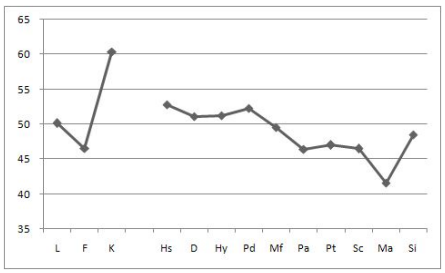


Fig. 1. MMPI prof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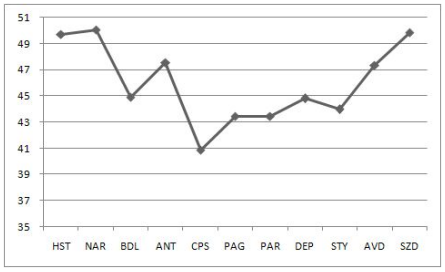


Fig. 2. MMPI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3. 연도별 비교

학생들의 연도별 MMPI 비교에서는 타당도척도, 임상척도, 성격장애척도 모두 연도별로 유의성이 있는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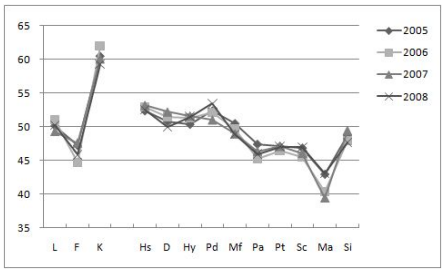


Fig. 3. Analysis of MMPI clinical scale by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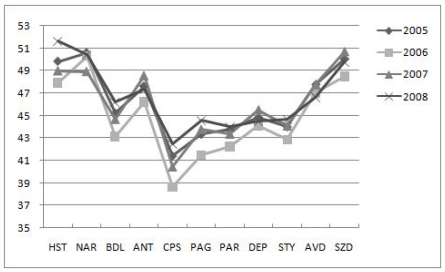


Fig. 4. Analysis of MMPI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by year.

Table III. Comparison of MMPI Scale by Year

	2005 (n=47)		2006 (n=31)		2007 (n=46)		2008 (n=44)			
	M	SD	M	SD	M	SD	M	SD	F	p
L	50.20	11.72	51.03	9.37	49.30	8.63	50.24	11.84	0.17	0.92
F	47.28	10.48	44.70	6.20	47.59	9.91	45.88	6.90	0.84	0.47
K	60.54	10.76	62.03	9.44	60.04	11.21	59.26	12.91	0.37	0.77
Hs	52.41	9.78	52.93	5.51	53.15	8.86	52.57	9.00	0.07	0.98
D	50.85	10.95	51.53	8.92	52.17	11.15	49.95	11.01	0.34	0.80
Hy	50.41	11.12	51.30	9.14	51.59	10.22	51.52	8.90	0.13	0.94
Pd	52.41	10.18	52.17	8.03	51.00	8.99	53.43	10.68	0.47	0.70
Mf	50.52	10.40	49.73	11.71	48.96	9.27	48.86	8.99	0.27	0.85
Pa	47.46	11.15	45.27	8.82	46.37	10.21	46.00	9.22	0.32	0.81
Pt	47.13	10.60	46.47	8.77	47.11	10.33	47.07	9.06	0.03	0.99
Sc	46.89	9.59	45.53	7.37	46.07	9.88	47.05	6.98	0.25	0.86
Ma	43.00	11.01	40.37	10.59	39.46	8.64	43.12	8.68	1.56	0.20
Si	48.80	11.24	47.93	9.09	49.43	11.90	47.67	12.11	0.22	0.88
ES	59.04	9.40	59.17	10.80	56.87	10.35	58.81	9.78	0.89	0.45
HST	49.85	10.11	47.93	9.45	48.98	10.59	51.62	10.09	0.26	0.85
NAR	50.63	10.92	50.30	8.55	48.91	10.86	50.43	9.77	0.62	0.60
BDL	45.22	10.76	43.13	7.13	44.65	9.91	46.19	9.40	0.37	0.77
ANT	47.63	11.44	46.23	6.48	48.54	9.78	47.33	8.34	1.07	0.36
CPS	41.39	8.76	38.67	6.93	40.41	9.40	42.45	10.73	0.48	0.70
PAG	43.33	11.16	41.50	9.67	43.76	11.31	44.55	10.87	0.26	0.85
PAR	43.76	8.77	42.27	6.49	43.35	9.56	43.98	8.56	0.14	0.93
DEP	44.83	9.59	44.10	8.75	45.50	10.32	44.50	10.13	0.21	0.89
STY	44.00	10.10	42.87	6.62	44.07	10.19	44.64	9.05	0.12	0.95
AVD	47.78	11.02	47.03	8.07	47.74	10.83	46.62	10.95	0.31	0.82
SZD	50.04	10.11	48.50	8.30	50.67	10.57	49.79	9.18	0.50	0.68

4. 남녀학생의 하위척도 비교

타당도 척도에서 남학생의 F척도의 평균 T점수가 여자보다 높았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상척도에서는 Hy, Pa, Sc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들의 평균이 높았다. Mf 척도에서만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는 통계적으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었다.

남녀 모두 정상범위 안의 범주에 있었으며, 남학생이 경우 Hs, Pd가 가장 높아 1-4 형태를 나타내고, 여학생의 경우 Pd, Hs가 가장 높아 4-1형태를 나타낸다.

성격장애척도에서는 PAG, DEP, AVD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들이 평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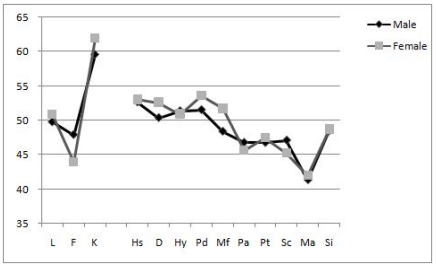


Fig. 5. Comparison of MMPI profi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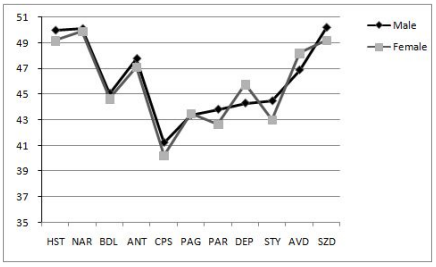


Fig. 6. Comparison of MMPI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Table Ⅳ. Comparison of MMPI Scal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Male M	SD	Female M	SD	t	p
L	49.74	10.71	50.82	10.06	−0.63	0.53
F*	47.89	9.49	43.93	6.64	3.11	0.00
K	59.54	11.45	61.91	10.60	−1.29	0.20
Hs	52.63	8.43	53.00	8.99	−0.26	0.79
D	50.35	10.23	52.59	11.28	−1.28	0.20
Hy	51.34	9.13	50.89	11.32	0.26	0.80
Pd	51.51	9.78	53.63	9.12	−1.34	0.18
Mf*	48.37	10.69	51.71	7.94	−2.26	0.03
Pa	46.76	10.51	45.64	8.81	0.68	0.50
Pt	46.73	9.13	47.48	10.90	−0.47	0.64
Sc	47.07	8.57	45.25	8.71	1.29	0.20
Ma	41.32	10.14	42.00	9.13	−0.42	0.68
Si	48.44	11.67	48.70	10.41	−0.14	0.89
ES	57.75	10.07	59.64	9.78	−1.15	0.25
HST	49.99	10.48	49.16	9.45	0.50	0.62
NAR	50.12	10.04	49.88	10.45	0.15	0.88
BDL	45.07	10.07	44.64	8.57	0.27	0.79
ANT	47.79	10.16	47.11	7.75	0.44	0.66
CPS	41.23	9.47	40.23	8.71	0.66	0.51
PAG	43.39	11.14	43.50	10.27	−0.06	0.95
PAR	43.82	8.70	42.66	8.20	0.83	0.41
DEP	44.31	8.93	45.75	11.10	−0.84	0.40
STY	44.48	9.74	43.00	8.22	0.97	0.33
AVD	46.90	10.41	48.18	10.39	−0.75	0.46
SZD	50.21	9.82	49.21	9.35	0.63	0.53

*p<0.05 (comparison between male and female)

5. 연령별로 나눈 두 그룹간의 비교

그룹1(23-27세)과 그룹2(28-42세)의 차이는 타당도 척도에서 그룹2의 K 척도가 그룹1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L, K척도와 Hs, Hy, Pd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그룹1이 높았으며, K척도를 제외하고 그룹 간 척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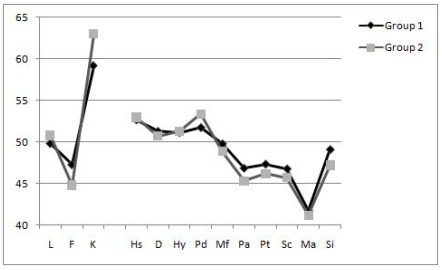


Fig. 7. Comparison of MMPI scale between groups.

Table Ⅴ. Comparison of MMPI Scale between Groups

	Group 1 (23−27 years)		Group 2 (28−42 years)			
	M	SD	M	SD	t	p
L	49.8	10.0	50.8	11.6	−0.55	0.585
F	47.3	8.9	44.8	8.4	1.66	0.098
K*	59.2	11.1	63.0	11.1	−2.01	0.046
Hs	52.7	8.5	53.0	8.8	−0.20	0.844
D	51.3	11.3	50.7	9.1	0.33	0.741
Hy	51.1	9.6	51.3	10.6	−0.08	0.935
Pd	51.7	9.8	53.4	9.1	−0.99	0.324
Mf	49.8	9.3	48.9	11.4	0.55	0.583
Pa	46.9	9.0	45.3	11.9	0.84	0.405
Pt	47.3	9.9	46.2	9.3	0.71	0.481
Sc	46.8	8.7	45.7	8.6	0.73	0.465
Ma	41.7	9.7	41.2	10.2	0.33	0.739
Si	49.1	11.8	47.2	9.8	1.00	0.317
ES	57.7	9.6	60.0	10.7	−1.33	0.186
HST	50.4	10.3	48.0	9.7	1.38	0.169
NAR	49.6	10.3	51.0	9.7	−0.78	0.439
BDL	45.7	9.7	43.1	9.1	1.60	0.111
ANT	47.8	9.4	46.9	9.4	0.57	0.572
CPS	41.7	9.4	38.9	8.5	1.78	0.076
PAG	44.6	10.7	40.7	10.7	2.15	0.033
PAR	44.3	8.4	41.5	8.5	1.93	0.055
DEP	45.7	9.9	42.7	9.1	1.86	0.065
STY	44.3	9.4	43.1	9.0	0.79	0.432
AVD	47.8	10.8	46.2	9.4	0.91	0.364
SZD	49.9	10.1	49.8	8.7	0.08	0.934

* : p<0.05 (comparison between group 1 and group 2)

Ⅳ. 고 찰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객관적 성격검사이다[11]. MMPI의 일차적 목적은 정신장애의 진단이지만, 또 다른 용도로 정상인에게 적용하여 성격 검사로서 활용할 수 있기에 학교나 직장에서 평가용 혹은 선발용 및 연구용 측정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MMPI는 진단평가와 연구 분야에서 타당화된 측정도구로서 오랫동안 애용되

어 왔다[12]. MMPI는 개인의 인성특성을 측정 평가하는 기술적인 검사가 아닌 성격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징후를 포함하는 인성의 다면적 특성을 진단하는 검사로 기업체의 인사선발이나 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김[13]은 MMPI와 행동특성간의 관계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이 도구는 정신 병리의 탐지뿐 아니라 정상인의 성격과 관련된 행동특성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대학생 정상집단에 대한 MMPI 연구는 구[4]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의 성격에 대해, 이[5]가 간호학과 학생들의 성격특성에 대해, 김[6]이 신학대학원생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의계에서는 김[9]의 알콜리즘과 사상체질과의 관계에서의 인성검사에 대한 연구 등, MMPI와 사상체질과의 관계성을 찾고자하는 연구가 있었으며, 허[8]가 한의대 재학생의 MMPI와 사상체질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의대 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알아보았기에, 이번 연구에서는 졸업반 학생들의 연도별·연령별 특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6년간 한의대 생활을 해왔으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한의사의 성격특성과 4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학년별 경향을 파악하여, 한의과대학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 동시에 성별과 연도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졸업예정자들의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MMPI 결과 한의과 학생의 모든 하위척도의 평균 T점수는 40점에서 60점 사이의 정상집단임을 확인하였다.

타당도 척도를 살펴보면, L척도는 피검자가 자신을 좋은 모양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다소 고의적이고도 부정직한 시도를 측정하려는 척도로써, 학생들의 평균은 50.1로 사소한 사회적 약점을 적절히 부인하거나 인정할 줄 알며, 호감을 주는 자아상을 창조하려 시도하는 세련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F척도는 생각이나 경험이 일반 대중들과 다른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학생들의 평균은 46.5로 비교적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정상인이며 사회적 순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K척도는 현저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이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척도가 측정하는 것은 은밀하고 세련된 방어성과 경계성이다. L척도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L척도보다는 은밀하게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에게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온다. 본 연구에서 K척도는 평균 60.3으로 전형적인 중상류 및 상하류 집단과 대학생에 나타나는 점수범위이며, 정신건강이 양호하고 잘 적응하며 통찰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일상적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고가 명료하고 합리적이며, 스트레스 받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는다. 정신건강이 양호하고, 잘 심리적인 장애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부인(denial)과 히스테리적 방어가 특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1].

타당도 척도의 형태를 살펴보면 L, K 척도점수가 높고 F점수는 뚜렷하게 낮은 V자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결점이나 심리적 불편감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교적 적응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방어

적 집단'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가능한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하며, 개인적 정보나 문제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를 나타낸다.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이나 충동 혹은 문제들을 부인하거나 회피하려 하며 자신을 가능한 한 가장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방어적인 정상인들이나 히스테리 환자 또는 건강염려증 환자에게서 많이 보인다[11]. 또한 이러한 집단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며, 자기개념에 부합되지 않는 평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14].

한의과대학 본과3학년을 대상으로 MMPI를 통해 성격특성을 연구한 허[8]의 연구에서는 타당도 척도가 L척도 47.55, F척도 47.62, K척도 51.53로 아주 완만한 정적 기울기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형태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이 있고,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겪지 않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임상척도에서는 Ma를 제외한 모든 척도들이 모두 50점(평균) 부근의 T점수를 보이는 집단으로 '정상 프로파일 집단'으로 봐도 무방하다. Ma는 정신적 에너지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Ma 41.6은 나이 많은 정상인(40~50)의 점수 수준으로 정상적인 대학생 및 청소년(55~65)에 비해 활력 및 활동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a가 낮은 사람은 문제해결 방식이 실제적이고 합리적이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남들이 보기에 겸손하고 진지하며 조용하다. 감정억제가 심한 경향이 잇고 사회적 활동에 별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11].

Ma에 대한 Harris & Lingoes 하위척도의 평균값은 비도덕성 45.5±9.7, 심신운동항진 44.3±9.9, 냉정성 50.0±8.8, 자아팽창 46.0±9.6 이었다.

허[8]의 연구에서는 D가 53.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Hs가 52.97이었고, 낮게 나타난 것은 Ma, Sc이었다.

전체학생과 남학생의 평균T점수는 Hs, Pd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Pd, Hs가 가장 높아서, 1-4/4-1의 상승척도를 보인다. 1-4/4-1의 유형은 반사회성보다 건강염려증적인 측면이 강한데, 비관적이고 칭얼거리며 잔소리 많은 특징들이 척도4의 반사회성으로 인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불안하고 우유부단하며, 외향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이성과의 관계가 미숙하고, 가정이나 부모에 대하여 반항적이나 직접 표현하지는 못한다. 술을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나 실직 혹은 가정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11].

그러나 Hy, D, Mf 점수 역시 최고점인 Hs, Pd와의 차이가 5점 이내로 근접하므로 전형적인 상승척도 쌍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성격장애 척도는 모두 60이하로 정상수준이었으며, 전체 학생, 남녀, 연도별 성격장애척도 점수에서 공통적으로 CPS가 가장 낮게 나왔다. 전체학생과 남학생, 여학생에서는 NAR, SZD가, 연도별 분류에서는 NAR, SZD, HST가 높게 나왔다. NAR척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특별대우를 기대하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와 열등감, 모욕감을 느끼고 우울한 기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재능, 성취도에 대한 과대적 느낌이 있어 타인의 비

판에 매우 예민하나 감정이입은 결핍되기도 한다. SZD척도가 높으면 냉담하고 무관심하며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 하고 혼자서 비경쟁적인 직업을 갖는 경향이 있다. 사회로부터 철퇴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 형성 능력과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고 지나치게 내향적이며, 온순하고 빈약한 정서가 특징이다[15].

남녀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F척도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T점수의 상승은 경미하였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순응도가 높고 비교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임상척도에서는 Mf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는 통계적으로는 남녀 간의 큰 차이는 없었다.

성격장애척도에서는 남학생, 여학생 모두 NAR, SZD가 가장 높았고, CPS가 가장 낮았다.

연도별로 학생들의 성격특성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생 중에서 정상범위보다 높은 70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총 46명 가장 많은 학생이 나타난 임상척도는 D 이었고, 다음으로 Hy, Pd, Si 순으로 나타났다. 정상범위보다 낮은 30점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총 38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나타난 임상척도는 Ma 이었다.

성격장애척도에서는 SZD가 가장 높았고, CPS가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나누어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그룹1에 속하는 23~27세의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들어오거나 재수, 삼수를 통해 들어온 집단이며, 그룹2에 속하는 28~42세의 학생은 타 대학을 중퇴·졸업을 하고, 군 생활 또는 직장 생활을 통해 사회적 경험이 있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였다. 사회적 경험이 한의대 졸업반 학생들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했으나, K척도에서만 의미 있게 높게나왔을 뿐, 여타 척도들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K척도는 은밀하고 세련된 방어성과 경계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56~69의 범위는 전형적인 중상류 및 상하류 집단과 대학생에 나타나며, 정신건강이 양호하고 잘 적응하며 통찰력이 있고 독립적이며 일상적인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고가 명료하고 합리적이며, 스트레스 받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타인의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는다[11]. 그룹2의 K척도가 높은 것을 보아 사회적 경험을 통해 그룹1의 학생에 비해 처해있는 상황이나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친근성이 떨어지며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MMPI를 통해 본 성격특성상 정상범주를 벗어나는 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건강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 집단의 MMPI 평균만으로 집단의 성격특성을 알아보려한 것으로 실제적인 전체적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연구는 예비적 차원의 연구로써 보다 정확한 대상 집단의 성격특성을 알기위해서는 다음 연구에서 상승척도 쌍의 빈도별 분석, 이상점수를 나타내는 학생들의 빈도 분석, 타당도 척도 및 임상척도의 세부적 분석 등이 추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과대학 졸업생의 성격특성을 다면적 인성검사 하나 만으로 일반화하여 단정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MMPI 뿐만 아니라, Rorschach,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16PF(16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등의 여러 심리검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QSCC(사상체질분류검사지) 등을 통해 체질과 성격특성간의 연관성도 같이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본과4학년 164명을 대상으로 MMPI (566문항)을 실시하여 성격특성을 살펴보고, 성별과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한의과대학 본과4학년 학생의 T점수는 정상범위 안에 있었으며, 4년간 학생들의 연도별 차이는 없이 비슷한 유형을 보였고, 이는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유형이었다.

비교적 적응적인 방어를 하고 있는 '방어적 집단'이며, 정상범위의 점수를 가진 정상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남녀 간의 비교에서는 F척도에서 차이가 있어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순응도가 높고 비교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을 확인했고, 연령별 비교에서는 28~42세의 집단이 23~27세의 집단에 비해 K척도가 높아 보다 방어적 태도를 나타내며 자신을 좋게 보이려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1. 조두영. 임상행동과학. 서울:일조각. 1985:51-5.
2. 김창엽, 김선민, 서정돈, 엄유의, 안윤옥, 김성권, 채종일, 이순형. 의학교육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만족도 조사. 한국의학교육. 1996;8(2):169-88.
3. 김광일, 원호택, Xiehe Liu, Peiyi Liu, Kenji Kitanishi. 중국, 일본 및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4;6(33):1321-8.
4. 구본권. 특수교육전공 학생들의 MMPI 검사에 나타난 성격. 특수교육저널. 2006;7(2):71-88.
5. 이미련. MMPI에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2008;28:389-400.
6. 김석주. 신학대학원생 MMPI 특성에 대한 연구. 총신대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재환, 이희경, 류진혜, 김택호. 비정상 MMPI 프로파일을 보인 대학 신입생의 학업 적응에 관한 일연구. 대학생활연구. 1991:111-24.
8. 허성, 심상민, 김근우, 구병수. 다면적 인성검사에 관한 초보적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1;12(2):147-56.
9. 김지혁, 황의완, 김종우.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임상적 고찰.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2;3(2):65-85.
10. 김지영, 조혜영, 김윤용, 조성훈, 황의완. 한의과대학생들의 자아방어기제 특성에 대한 예비적 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2008;19(3):23-34.
11. 김중술. 다면적인성검사. 개정판.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1-2, 31-55, 73-166.

12. 안창일. MMPI의 다차원적 연구. 서울:시그마프레스. 2001:1-2.
13. 김진영. MMPI와 행동특성간의 관계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3.
14. Stephen EF. Manual for using the MMPI-2 as a therapeutic interven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48-66.
15. 민성길. 최신정신의학. 서울:일조각. 2004: 65, 301-8, 352-73.